**◆하나님의 선물 / 케네스 해긴의 그리스도의 선물 중에서**

****

케네스 해긴의 그리스도의 선물 중에서 - 계시은사, 능력믿음, 대언

*註1: 제가 그리스도의 선물과 관련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제 노트에 요약해 놓은 것을 올립니다,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말의 연결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몇가지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장용으로 메모하였기 때문에 두서가 좀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좀 손을 보아 정리해서 올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보완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註2: ‘그리스도의 선물’에서 나오는 교회의 행정권에 대한 요약노트는 계시적 말씀코너에 있는 “교회의 행정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한 은사들

예수님께서는 방언과 방언통역을 제외한 (이는 거듭남으로 가능) 모든 은사들이 구약시대에도 역사했다고 좀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언은 이 시대에 국한된 예외이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일을 알았으면 사람들은 엘리사 같은 사람은 자동으로 어떤 사람과 관련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하0526. 이에 그가 저에게 말하니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기 위해 그의 전차(戰車)로부터 다시 돌아섰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더냐? 지금이 돈을 받을 때며, 옷들과 올리브 나무밭[자이트:(등불기름을 산출하는) 감람나무, 가지, 장과, 감람나무밭, 감람산]들과 포도원들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냐?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고 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만 역사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늘 함께 있으면서 대언자가 언제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편지를 보내오곤 합니다만, 예배 가운데 은사가 역사할 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의 종류

선물의 대분류

1.선물 은사

2.직분(직임)의 은사

3.작용(기능)의 은사

**1.선물 은사**

고전1208. 이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그노씨스:행위를 아는 것,지식,학식,학문)의 말씀'이 주어지며,

고전1209.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을 고치는 선물(카리스마:신성한 선물,구속,영적인 증여,자질부여,신비한 능력,값없는 선물,부여된 은총)들'이 주어지며,

고전1210. 또 다른 이에게는 '기적[뒤나미스: 힘,능력,이적(異蹟),힘있게,이적적인 일꾼,권능,강력,전능한,일,권력,세력]들의 작용(에네르게마:효과,작업,작용)'이, 또 다른 이에게는 '대언(代言)'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이, 또 다른 이에게는 '말(글롯싸:혀,언어,말,방언)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말들의 해석(통역)'이 주어짐이라.

요약하면, 선물은사는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2)능력의 은사: 능력믿음, 치유은사, 기적을 행함

3)목소리 은사: 대언, 방언, 방언통변

**2.직분(직임)의 은사**

고전1228.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을 설정하셨으니 곧,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가르치는 자들(선생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뒤나미스: 힘,능력,이적(異蹟),힘있게,이적적인 일꾼,권능,강력,전능한,일,권력,세력]'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이요, '도움들'이요, '통솔자(퀴베르네씨스: 조종,지배,지도자,정부,통치)들'이요, '말(글롯싸:혀,언어,말,방언)들의 다양함들'이라.

Ω엡0411. 그리고 믿음의 단일체(헤노테스:하나됨,만장일치,연합) 안에서와 하나님 아들을 숙지함(에피그노씨스:인식,완전 식별,인정,승인)의 단일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에①, 그리스도의 가득찬 것(플레로마:충만,완성,가득찬 것,가득 채워진 것,가득 채우는 것,완수하는 것,완성시킴)의 성숙함[헬리키아:(햇수 또는 크기에 있어서의) 성숙,나이,키]의 분량(메트론:척도,미터,제한된 분량,정도,한도)에② 이를 때까지, 성도(분리된 자)들의 완성을 위해, 섬김(직분)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분께서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어떤 이들을 대언자들로, 어떤 이들을 복음 전파자(유앙겔리스테스: 복음전파자,전도자)들로, 어떤 이들을 양치기들과 교사들로 주셨느니라.

**3.작용(기능)의 은사**

고전1206. 그리고 작용(에네르게마:효과,작업,작용)들의 다양함들이 있으나,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에네르게오:활동적이다,효과적이다,행하다,강렬하다,능력있다,자신을 나타내다,효과적으로 일하다)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계시하는(reveal) 계시은사 ; 1)지혜의 말씀, 2)지식의 말씀, 3)영분별

어떤 것을 행하는(do) 능력은사 ; 1)능력믿음, 2)치유은사, 3)기적을 행함

어떤 것을 말하는(say) 목소리은사 ; 1)대언, 2)방언, 3)방언통변

어떤 것을 계시하는 영적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하는 영적 은사는 능력믿음, 치유의 은사들, 기적들을 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은사들은 종종 '능력의 은사'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영적 은사는 대언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 통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은사들은 영감을 주는 은사 혹은 목소리를 내는 은사라고 불립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고전1211. 그러나 그 한 분이시며 동일한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낱낱의 자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느니라,

**◆계시은사. (그리스도의 선물 p111)**

**1)지혜의 말씀 ; 미래 계시**

많은 이들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는데,

지혜의 말씀은 '지혜'도 아니며, 지혜의 말씀은 '지혜 은사'도 아니며

장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들에 관한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한가지의 지혜 곧, 계시 (광범위한 지혜가 아니고, 한 토막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계시하는 것,

즉 미래나 장래에 일어나는 것을 계시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의 말씀

"대언자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2)지식의 말씀: 과거나 현재의 어떤 사실의 계시**

지식의 말씀은 '지식'도 아니며, 지식의 말씀은 '지식 은사'도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사실들, 즉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 관한 사실들, 장소들에 관한 사실들, 또는 과거나 현재의 어떤 것들에 관한 사실들에 관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계시,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한토막의 지식 곧, 계시 (광범위한 지식이 아니고, 한 토막의 지식)

현재나 과거의 일을 계시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말씀, 즉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여야 한다

Ω롬1206.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호의)를 따라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대언하자(히브리어 네부아: 흘러나오다, 대변하다, 헬라어 프로페테이아: 다른 사람을 대변하다)

**3)영분별 :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케네스 해긴 p214**

대언자로 하여금 영적인 영역에서 보거나 듣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천사나 귀신을 볼 수 있게, 천국이나 지옥을 볼 수 있게,

한마디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은 영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분별은 영의 영역에서 보고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분별은 영의 세계를 보거나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영분별이 아닌 것

1)영분별은 분별이 아닙니다. 영분별은 분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영분별은 사람의 영적인 생각을 읽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투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결점들을 드러내거나 분별하는 능력은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Ω마0701. 너희가 판단(판정)받지 않게, 판단(판정)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벧전0408. 무엇보다도 너희 사이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빗나감)들을 덮음이라.

3)심지어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분별은 영들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리고 영적 영역에 존재하는 영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4)영분별은 단지 마귀를 분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단지 마귀를 분별하거나 악령들을 분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은사는 모든 계층의 영들, 즉 선한 영들, 악한 영들, 그리고 인간의 영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이 모든 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계시하는(reveal) 은사(계시은사), ;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어떤 것을 행하는(do) 은사(능력은사), ; (능력믿음, 치유은사, 기적을 행함)

어떤 것을 말하는(say) (목소리은사) ; (대언, 방언, 방언통변)

은사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앞장들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이며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은사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성령의 일부 은사들은 자연적인 것이고 다른 일부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들 중 하나가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나머지 모든 은사들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10절에 나열된 각각의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국어로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언어로 말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방언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말로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롬 8:14)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의미에서 초자연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성령의 은사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영 속에는 내적 증거(inward witness)가 있는데

이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 내적 증거가 초자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은사의 작용은 아닙니다.

내적 증거는 단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며, 모든 크리스천들은 매일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롬 8:14)

나는 자주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때론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함으로 어떤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초자연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적 감동이나 내적 증거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기도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나는 항상 내가 할 바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군요.”

내적 증거에 의한 이런 인도함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계시하는 초자연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계시의 은사들 즉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혹은 영분별 중 하나가 작용한 것입니다.

**능력 은사**

어떤 것을 행하는(do) 능력은사에는

1)능력믿음, 2)치유은사, 3)기적을 행함

이 셋이 있습니다.

고전1209.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을 고치는 선물(카리스마:신성한 선물,구속,영적인 증여,자질부여,신비한 능력,값없는 선물,부여된 은총)들'이 주어지며,

고전1210. 또 다른 이에게는 '기적[뒤나미스: 힘,능력,이적(異蹟),힘있게,이적적인 일꾼,권능,강력,전능한,일,권력,세력]들의 작용(에네르게마:효과,작업,작용)'이, 또 다른 이에게는 '대언(代言)'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이, 또 다른 이에게는 '말(글롯싸:혀,언어,말,방언)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말들의 해석(통역)'이 주어짐이라.

고전1211. 그러나 그 한 분이시며 동일한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낱낱의 자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느니라,

*(일반적으로 믿음하면, 같은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믿음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고, 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믿음의 용어를 편의상 세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일반 믿음 ; 구원에 이르는 믿음*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레마:말, 말씀)에 따른 들음에서니라.*

*▪열매로서의 믿음 ; 열매믿음(신의 두터움, 신뢰, 진실함)*

*Ω갈05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카라:유쾌함,은은한 기쁨,즐거움,희락)과 평강(에이레네:평화,번영,평강,하나가 됨,고요,안식)과 오래 참음(마크로뒤메오:오래 참음,꿋꿋함,인내,참을성)과 관대함(크레스토테스:유용함,탁월함,인자함,자비,선함)과, 선함(아가도쉬네:착함,덕행,선행,양선)과, 신뢰(피스티스:설득,신용,확신,신뢰) (개역성경에 ‘충성’으로 번역됨)와*

*▪은사 믿음 ; 능력믿음*

*고전1209.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을 고치는 선물(카리스마:신성한 선물,구속,영적인 증여,자질부여,신비한 능력,값없는 선물,부여된 은총)들'이 주어지며,*

**◆믿음의 은사(능력 믿음)**

이전 장들에서 성령의 계시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의 은사인 능력믿음, 기적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치유의 은사들을 알아봅시다.

이번 장에서는 능력의 은사들 중 그 첫 번째인 능력믿음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확대번역입니다.

고전1209. (p)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기적이 역사하는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을 고치는 비범한 권능들'이 주어지며,

이 성령의 은사는 또한 특별한 믿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능력믿음은 구원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모든 신자들은 이미 일반적인 믿음 혹은 구원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또한 하나의 은사(gift)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Ω엡0208. 이는 은혜에 의해,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 받음이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gift)이지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레마:말, 말씀)에 따른 들음에서니라.

우리가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믿음은 일반적인 믿음 곧 구원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 혹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믿음은 단순한 구원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능력믿음은 세 가지 능력의 은사들 중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믿음도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초자연적인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능력믿음은 신자가 기적을 받도록(receive)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은사입니다.

반면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신자가 기적을 행하도록(work)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은사입니다.

능력믿음은 어떤 것을 받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봅시다.

고전1210. 또 다른 이에게는 '기적[뒤나미스: 힘,능력,이적(異蹟),힘있게,이적적인 일꾼,권능,강력,전능한,일,권력,세력]들의 작용(에네르게마:효과,작업,작용)'이, 또 다른 이에게는 '대언(代言)'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이, 또 다른 이에게는 '말(글롯싸:혀,언어,말,방언)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말들의 해석(통역)'이 주어짐이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부음에 의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기적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은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개 함께 역사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계시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계시의 은사들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함께 역사합니다.

또한 말하는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에 단순한 일반적인 믿음이 적용됩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들은 능력믿음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믿음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Ω막0923.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만약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 하나인 능력믿음은 단순한 구원믿음과는 다르며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믿음 곧 특별한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열매믿음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Ω갈05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카라:유쾌함,은은한 기쁨,즐거움,희락)과 평강(에이레네:평화,번영,평강,하나가 됨,고요,안식)과 오래 참음(마크로뒤메오:오래 참음,꿋꿋함,인내,참을성)과 관대함(크레스토테스:유용함,탁월함,인자함,자비,선함)과, 선함(아가도쉬네:착함,덕행,선행,양선)과, 신뢰(피스티스:설득,신용,확신,신뢰) (개역성경에 ‘충성’으로 번역됨)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신의 두터(faithfulness)”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관한 것이며,

성령의 은사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열매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매인 신의 두터움(충성됨)은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능력믿음은 성령의 뜻대로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특별한 믿음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역자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해준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초자연적으로 일으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구원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열매믿음(신의 두터움) 곧 성령의 열매인 진실함은 구원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은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선물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인 능력믿음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작동합니다.

기도처럼 믿음도 사람들이 쉽게 혼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모든 믿음을 한 자루에 집어넣고 뒤섞고 흔들어서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 곧 구원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일반적인 구원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나는 믿음을 가질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전12:9의 말씀을 읽고, 모든 믿음이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전1209.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을 고치는 선물(카리스마:신성한 선물,구속,영적인 증여,자질부여,신비한 능력,값없는 선물,부여된 은총)들'이 주어지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증명하였듯이 능력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구원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성경 말씀대로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하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며(롬 10:17),

모든 신자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Ω롬1203. 이는 내게 주어진 은혜(호의)를 통해 내가 너희 중에 있는 낱낱의 자에게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곧, 그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낱낱의 자에게 믿음의 분량(되, 말)을 나눠주신 대로, 제정신으로 생각하라 .

또한 이 특별한 믿음은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키워 가는데 필요한 성령의 열매인 열매믿음(신의 두터움)도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일반적인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막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다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갖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심지어 성령 세례를 받기도 전에 단지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경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혹은 재정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결코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믿음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뜻에 따라 선물(gift)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실천하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들이 능력믿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면,

모든 사람이-심지어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다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세례를 받았지만 능력믿음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고전1208. 이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그노씨스:행위를 아는 것,지식,학식,학문)의 말씀'이 주어지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능력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 능력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내가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증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믿음은 성령의 뜻대로 주어진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입니다.

**능력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의 차이점**

능력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둘 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능동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능력믿음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고 수동적으로 어떤 기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은사의 차이점은 기적을 능동적으로 일으키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유사 이래로 사자 굴에 던져진 사람들은 사자의 먹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 사자들은 다니엘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단 6:23)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능력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려놓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의 믿음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었지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도 성난 폭풍이 일 때 배 후미에서 잠을 주무시므로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막0438. 그리고 그분께서는 배의 뒷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들어 계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깨우니라, 그분께 여쭈되, 선생님, 우리가 소멸하는 것을 당신께서 염려치 않으시나이까?

혹자는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빌0207. 대신에 아무런 명성이 없는 것으로 그분 자신을 만드시고(케노우:텅비게 하다,격하시키다,중성화 하다,그릇되게 하다,쓸데없게 하다,영향력이 없게 하다,헛되게 하다,헛되다), 그분 위에 종의 형상(본질,모양/ 모르페:형상,본성,형태,모양,외형)을 취하시어, 사람들의 모습(호모이오마:형태,닮음,유사)으로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려와 기름 붓기 전이나 후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 후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진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한 인간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Ω요1412.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위에서 믿는 그 자, 그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또한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그가 행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한 인간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부음과 영감 가운데 사역하셨다면, 신자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조용히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성난 폭풍이 일어 그들을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배 후미에서 잠자고 계셨습니다.(막 4:38)

예수님은 그 폭풍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굴속에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닐 때, 다니엘은 완전한 평강과 침착한 확신 가운데 위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다니엘은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는 단순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선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전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믿음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작용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믿음을 통해, 그들은 초자연적인 침착성과 고요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능동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능력믿음은 어떤 지속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능력믿음이 필요할 때, 그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믿음이 작용할 때 그 당사자에겐 그 상황에 대한 확신할 만한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믿음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성이 요구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기적을 받기 위한 특별한 믿음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족장들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안수하며, 먼 미래에 언젠가 그들의 자식들에게 일어날 축복이나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능력믿음이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믿음 즉 특별한 믿음의 작용을 통해서 족장들은 그들이 말한 것들이 아무리 세월이 흐를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능력믿음은 사람이 말하였거나 원한 것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일어나도록 하는 신적인 은사 혹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권능이 부여된 은사입니다.

인간적인 혹은 신적인 기적, 말, 확신, 저주와 축복, 창조와 파괴, 소멸과 변화 이러한 것들은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의 영감(inspiration)하에서 선포되어질 때 결국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   위글스워스와 능력믿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간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도달하게 된다면, 대부분 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글스워스의 사역에서 적어도 3명의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위글스워스와 친분이 있는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글스워스가 야외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인 폴 리가 미첼의 집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글스워스가 미첼의 집을 방문하기 전날, 미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위글스워스가 미첼의 집에 도착하자 울음소리가 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미첼의 방으로 들어가 “미첼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미첼 부인을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첼 부인을 뒤로한 채 방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미첼은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늘 내가 상식을 넘어서 더 나아가는 것을 우려하곤 하였습니다.

아내는 나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미첼이 죽었다는 것을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나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시자 믿을 수 없는 평강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미첼이 살아났다! 미첼이 살아났다! 미첼이 살아났다!”

그리고 미첼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위글스워스가 한 것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은 자를 침상에서 끌어내어 일으켜 세운 뒤 걸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죽은 자를 다시 걷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능력의 은사들은 자주 함께 역사합니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세 가지 능력의 은사들은 흔히 함께 역사합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때 이 세 가지 능력의 은사가 함께 작용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 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 일부의 사람들은 한 두 개의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능력의 은사 모두를 가진 사람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육신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특별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처럼 몸은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요 11:39)

또한 죽은 자를 살릴 때에는 치유의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그를 죽게 한 그 질병이나 상처가 여전히 몸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는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이 세 가지 능력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병자가 치유될 때 능력믿음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치유의 은사가 작용한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불치병이 치유 받고 지체장애자가 걷는 것은 치유의 은사가 작용한 것입니다.

◇   축사(Casting Out Demons)

능력믿음이 다른 성령의 은사와 함께 작동하는 또 다른 영역은 축사의 영역입니다.

축사할 때, 영분별 혹은 지식의 말씀이 믿음의 은사와 함께 작동합니다.

당신이 그 영을 보거나 분별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그 악령의 실체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 계시됩니다.

그러나 그 악령을 쫓아내는 데는 능력믿음이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마귀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과 능력, 권위 그리고 우리 삶속에서 사탄의 패배를 확정짓는데 필요한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중 하나가 바로 이 초자연적인 능력믿음입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능력믿음은 축사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능력믿음의 목적

이전에 언급했듯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어떤 행동(Act) 이상을 행하는 것이며

반면에 능력믿음은 어떤 과정(Process) 이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며, 능력믿음은 어떤 기적을 받는 것입니다.

* 요약하자면,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족장시대처럼 축복이나 인간의 말이 성취되는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대부분 족장들이 죽을 때, 그들은 아들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을 명했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믿음의 작용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능력믿음이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셋째로, 이 능력믿음은 기근의 때에 초자연적인 생존을 위해서 작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열상 17:3-6)

엘리야의 믿음은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들이 그를 먹일 것을 믿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은 아침저녁으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롬 10:17)

그러나 능력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기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능력믿음은 이미 지적하였듯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능력믿음은 축사하는데 작용합니다.

당신이 축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처럼 비중을 두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경우에 이 능력믿음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안수를 할 때 작용합니다.

갈0305.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며, 또 너희 가운데서 기적[뒤나미스: 힘,능력,이적(異蹟),힘있게,이적적인 일꾼,권능,강력,전능한,일,권력,세력]들을 행하시는 그분, 그분께서 그것을 법의 행실들에 의해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관해 들음에 의해 하시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할 때,

그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에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들음으로 인한 믿음 곧 모든 신자가 소유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하는데 이때 능력믿음이 그들의 사역에 함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능력믿음은 대부분 신자들에게 성령세례를 줄 때 작동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기적을 행하는 것 이상의 어떤 사역을 하도록 초자연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안수를 할 때 이 능력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신자라도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안수할 수 있으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사역할 때,

그곳에는 성령의 은사의 작동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은사의 작동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나 치유를 위해 안수한다면, 안수 받는 그 사람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그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작용하지 않는 안수는 단지 하나의 접촉일 뿐입니다.

즉 안수 받는 자는 안수하는 자의 손이 접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자신의 믿음을 풀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안수 받은 자가 그 자신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으며, 그의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전이시키며, 영혼을 부요하게 하며, 영적인 봉사를 위해 누군가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즉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사역(안수 사역)을 하는데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능력믿음을 통해서 엘리야의 경우처럼 광폭한 불이 제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왕상 18:38)

능력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으며,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공급 받았으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왕상 19:4,6)

또 어떤 이는 음식이나 물도 없이 40일 동안 사역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출 34:28)

이 능력믿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면서 경계를 섰습니다. 즉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있었던 것처럼, 광폭한 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단 6:22)

능력믿음의 은사가 작용된 사람들의 영속에 내적인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사형선고를 받은 베드로는 처형 전날 밤에 잠을 자고 있었지만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행 12:6-11)

그리고 이 능력믿음을 통해서, 배를 전복시키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막 4:39)

능력믿음은 더러운 영으로 망가진 사람들의 몸에서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믿음은 성령 세례 사역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기적적으로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할수록, 과거보다 더 자주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케네스 해긴 p244**

◇기적의 정의 ; 자연계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연적인 출생이 기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도 기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행위이지만,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치유분야에서 자주 기적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반드시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치유의 기적들이라고 불립니다.

기적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며, 자연계의 일상적인 과정에 초자연적 관여가 있는 것이며, 익숙한 질서의 일시적인 정지이거나, 우리가 아는 자연계의 시스템이 정지하는 것입니다.

◇병고치는 은사는 구약보다 신약에서 더욱 더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에서 더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 실제로 두가지 성령의 은사가 홍해를 가르는데 작용하였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바다를 갈랐으나, 무엇이 바다를 갈라진 채로 유지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은사가 작동한 것입니다.

◇사례

1)엘리야와 과부

2)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3)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4)바울과 엘루마(행1304-12)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라고 허락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의 일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사들이 교회 내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1231. 그러나 진지하게 최고의 선물들을 갈망하라,

게다가 내가 너희에게 더 뛰어난 길을 보이느니라.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은사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나눠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십시요.

"주님! 이들 성령의 나타남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들로부터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들은 마땅히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은사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케네스 해긴 p275)**

권면하거나 안위하는 은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고전1403. 그러나 대언하는 그는 세움(충전, 오이코도메:건축,건축물,확정,건물,교회,짖다,세우다)과, 권면(파라클레시스:애원,충고,위로,위안,간청)과, 위로(파라뮈다아: 위로,위안,격려,권고)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자의 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계시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정이나, 죄의 자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대언의 은사는 오직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거나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구하거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언의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언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대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단순한 대언의 은사는 대언자 직분이나, 대언자 사역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말과 혼동되어서는 않됩니다.

Ω고전1401.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 선물들을 원하되, 더 더욱 너희가 대언(히브리어 네부아: 흘러나오다, 대변하다, 헬라어 프로페테이아: 다른 사람을 대변하다)하도록 원하라.

바울은 대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1229. 모두가 사도들이냐? 모두가 대언자(代言者)들이냐? 모두가 가르치는 자들이냐? 모두가 기적들의 일꾼들이냐?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대언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대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대언자로 만든다면, 바울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언의 은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고 해서 그를 대언자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언자는 대언자의 은사뿐만 아니라, 세가지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중에서 두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의 딸들(행2108)은 단순한 대언의 은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아가보가 왔을 때, 그는 계시를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     위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대언의 은사는 계시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     또한 구약에서의 대언과, 신약에서의 대언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대언은 반드시 예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신약의 대언의 은사는 FORTH TELLING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5.     대언은 영감된 말이며, 대언의 은사는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추론이나 지성을 뛰어 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에 대한 대언이 잘 맞지 않는 이유

1.구약과 신약의 대언자의 직임의 차이가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언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구약의 대언자에게는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자에게 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대언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스스로 내적증거에 의해 인도받는다,

성령께서 앞으로 올일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요1613. 그러나 진리(알레데이아:진리,참되다,진실성,사실)의 영(靈)인 그가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알레데이아)에로 안내하실 것이니라,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음이라, 대신에 그가 듣는 무엇이든, 그것을 그가 말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신약의 대언자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정도이다.

2.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아무때나 말하기 때문이다.

벧후0121. 이는 대언(代言)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오지 않았음이라,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몰려짐(움직여짐, 인도됨, 감동됨, 풰로: 참는다,감당하다,되다,생기게 하다,나오다,몰다,계속하다,놓여지다,인도하다,움직이다,감동하다,도달하다,지나다)에 따라, 그들이 말하였느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윗치를 올리고 임하게 할 수 없다.

그분은 그분의 필요하실 때에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을 요청 받으면 자판기처럼 아무때나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성령의 감동없이…

참 대언자는 적고, 거짓 대언자는 많다. 거짓 대언자는 탐심을 품는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특별히 주의할 점 :

1)돈을 조심하라, 2)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내게 돌리라.

3.예언을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4.진득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추측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말씀하신다. 골방에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겔130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대언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겔1303.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대언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언은 하나님의 Rule을 따라 해야 한다. 방식이 잘못됐다.

방향제시가 필요한 것을 즉시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5.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7.대언의 은사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케네스 해긴

**대언은 계시인가, 아닌가? ; 변승우 목사**

대언에는 계시가 없다(케네스 해긴)

하나님은 대언을 통해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시지 않으신다. 대언에는 드러내는 기능이 없다.

고전1403. 그러나 대언하는 그는 세움(충전, 오이코도메:건축,건축물,확정,건물,교회,짖다,세우다)과, 권면(파라클레시스:애원,충고,위로,위안,간청)과, 위로(파라뮈다아: 위로,위안,격려,권고)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느니라.

어떤 것을 계시하는(reveal) 계시은사 ; 1)지혜의 말씀, 2)지식의 말씀, 3)영분별

어떤 것을 행하는(do) 능력은사 ; 1)능력믿음, 2)치유은사, 3)기적을 행함

어떤 것을 말하는(say) 목소리은사 ; 1)대언, 2)방언, 3)방언통변

대언은 목소리 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언은 계시(드러내고, 벗기고, 폭로하는 것)가 아닙니다.

Ω고전1406. 한데 형제들아, 만약 내가 너희에게 계시에 의해서나, 지식(그노씨스:행위를 아는 것,지식,학식,학문)에 의해서나, 대언(代言)에 의해서나 가르침(교훈)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말들(글롯싸:혀,언어,말,방언)로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랴?

계시와 대언이 따로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Ω고전1426. 형제들아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중의 낱낱의 자가 찬송시(讚頌詩)[프살모스:음악의 일집,거룩한 송시(誦詩),(육성, 하프 또는 다른 악기의 반주 있는)시편,시,찬송 시]를 가지고 있으며, 가르침(디다케: 교훈,교리,교의,가르침,배우다)을 가지고 있으며, 말(글롯싸:혀,언어,말,방언)을 가지고 있으며, 계시(아포칼륍씨스: 드러냄,나타나는,오는,빛나는,명시,계시,폭로)를 가지고 있으며, 해석(통역)을 가지고 있느니라, 모든 것들로 하여금 세워지는데(충전되는데)로 행해지게 하라.

마찬가지로 방언통변도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와 통변이 따로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Ω고전1429. 대언자(代言者)들로 하여금 둘이나 셋이 말하게 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디아크리노: 철저하게 분리하다,철수하다,반대하다,식별하다,결정하다,주저하다,다투다,구별하다,의심하다,판단하다,흔들리다) 하라

대언하는 것과 계시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가 임하면, 대언하는 자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언은 무엇인가

계시가 아니라, 영감의 은사이다.

Ω벧후0119. 또한 우리가 대언(代言)의 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느니라, 성구(聖句)의 어떤 대언도 어떤 사사로운 해석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서, 날이 동이 트고 또 낮 별이 너희 마음들 안에서 솟아오르는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빛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 대언(代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희에게 당연하니라.

벧후0121. 이는 대언(代言)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오지 않았음이라,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몰려짐(움직여짐, 인도됨, 감동됨, 풰로: 참는다,감당하다,되다,생기게 하다,나오다,몰다,계속하다,놓여지다,인도하다,움직이다,감동하다,도달하다,지나다)에 따라, 그들이 말하였느니라.

계시 ; 선지자 사역

대언 : 평신도 사역